

전주 근대생활조명 100년

제 2 권

전주의 8·15 해방과 6·25 전쟁

격동시대 구술실록 (1945~1960)

개정판

장명수 엮음

국립전주박물관



0015076

전주문화재단

전주 문화의 중심

전주 근대생활 조명 100년
제 2 권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격동시대 구술실록(1945~1960)
개정판

발행인 | 장 명 수

발행일 | 1판 1쇄 : 2008년 11월 13일

2판 1쇄 : 2009년 1월 15일

발행처 | 전주문화재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40-3 (우)560-915

전화 : 063-283-9225~7 팩스 : 063-283-9228

출판 | 신아출판사 063-275-4000

Copyright(c) 2008 All rights reserved by 재)전주문화재단

〈비매품〉

차례

제1편 8·15해방과 정치 격돌

제1장 8·15해방과 격변하는 전주/장명수 • 15

- 1) 해방공간의 정치 서울 • 15 | 2) 임시 대책위원회 탄생 • 16
- 3) 미군정지사 갈로글리 중령 취임 • 17 | 4) 정당의 전북지부 발족 • 21
- 5) 반탁과 찬탁의 대결 • 22 | 6) 학원의 좌·우익 투쟁 • 23
- 7) 1946년, 남로당 10월 공세와 18사건 • 24 | 8) 1948년, 2·7파동, 종방파업과 김지희 입산 • 27
- 9) 1950년 좌익침투와 위장 평화공세 • 29

제2장 일제 패망과 해방 • 31

① 억압에서 풀려나 기쁨과 방종 • 31

1. 해방 후 최초의 신문, 건국시보/최정호 • 31 | 2. 임시대책위원회 출범/이치백 • 35
3. 말없이 해방이 찾아왔어/이정상 • 38 | 4. 일본의 패퇴와 미군의 진주/최희상 • 40
5. 발리산의 미군 통신대/오남근 • 43 | 6. 미군정 도지사의 착임/김대전 • 46
7. 미군정 중반의 도청/이정상 • 49

② 온갖 욕구 분출 • 51

1. 신주를 태우고 한글공부/김재영 • 51 | 2. 자유가 가져온 무법천지/박병연 • 53
3. 해방이 몰고 온 광란의 무질서/최순식 • 58 | 4. 권유대로 이 당 저 당 가입/하반영 • 63
5. 해방 후 바빴던 초창기 신문사/진기풍 • 66
6. 청산되지 못한 친일과 반민특위/손봉국 • 69

제3장 강력한 좌익 조직체 탄생 • 72

1. 민학이 스트라이크 주도/김성언 • 72 | 2. 남로당 전주시당 조직지도원/김성언 • 76
3. 남로당 전주시당 행정구책/임병식 • 79 | 4. 남로당 전북도당위원장의 최후/김용화 • 86
5. 사회주의에 몸바친 형제/최낙구 • 91 | 6. 김철수와 박현영의 갈림길/김용화 • 99

제4장 중 · 고등학생의 좌 · 우 대결 • 102

1. 대결이 치열했던 1946년/윤여헌 • 102 | 2. 10명 중 7명은 좌익/유도수 • 108
3. 북중, 좌 · 우파 학생 투쟁/이영조 • 111 | 4. 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싸웠어/손봉국 • 114
5. 사범, 좌 · 우 파쟁으로 갈리고/홍석영 • 118 | 6. 사범, 학련과 민학의 투쟁/김이박 • 123
7. 서북청년단/전병림 • 127 | 8. 12월 18일 학생사건/서은석 • 129

제5장 국방경비대 창설과 여순사건 • 133

1. 국방경비대 창설과 입대/성민완 • 133 | 2. 여순사건의 전말/김득중 • 138
3. 여순사건 출동으로 부상/조홍표 • 142 | 4. 내가 겪은 여순사건/최양수 • 145
5. 김지희 지리산 뱀사골 입산/김을생 • 151

제2편 6 · 25전쟁의 발발과 참상

제1장 6 · 25전쟁과 공산치하/장명수 • 155

- 1) 인민군 전주 점령 • 155 | 2) 공산치하 3개월 간 • 157
- 3) 9 · 28수복과 회문산 입산 • 160

제2장 서울에서 걸어 전주 피난 • 162

1. 남편 생사도 모른 채 피난길/손주순 • 162 | 2. 배고파 서울 탈출, 남쪽으로/박남재 • 171

제3장 정부 후퇴와 인공치하 • 174

① 후퇴와 텅빈 시가지 • 174

1. 좌익 사범 처형 수송 트럭 목격/김재영 • 174 | 2. 4차에 걸쳐 좌익사범 집단 학살/신경득 • 177
3. 좌익사범 학살현장에서 목격/김영복 • 180 | 4. 피난으로 텅빈 시가지/김종환 • 183
5. 출장 다녀오니 도청 해산/이정상 • 185 | 6. 부산으로 피난간 도청/김대전 • 187

② 공산치하 3개월 • 190

1. 인민군 전주 침입/유강수 • 190 | 2. 미군 비행기 고사동 폭격/허점봉 • 194
3. 평교사가 교장 자리에/최의완 • 195 | 4. 교육자를 반동으로 구속/오남근 • 199
5. 연행 도중에 사살당해/안영복 • 202

③ 인공치하의 생과 사 • 205

1. 가족과 헤어지고 홀로 피난/문무일 • 205 | 2. 포로가 된 딘 소장/이치백 • 210
3. 인민군 이동 길목의 비극/강병희 • 213 | 4. 무주에서 잡혀 전주형무소로/전종환 • 217
5. 전주형무소 학살에서 살아나/전종환 • 225 | 6. 시체 구덩이에서 기어 나와/김 송 • 234
7. 9·28수복과 우익 학살/유강수 • 238

제4장 군번 없는 학도의용군 • 242

① 사선을 넘고 넘어 • 242

1. 50발 탄피에 농구화 신고 전투/전종환 • 242 | 2. 포항전투에서 돌격 중에 잤어/김용인 • 251
3. 공격 중에 부상, 북청까지 진군/이기택 • 260
4. 고지를 향해 일진일퇴 육박전/유광철 • 266 | 5. 포로에서 탈출, 함북까지 북진/정세헌 • 272

② 끝없는 운명의 장난 • 281

1. 생일 쇠러 도망친 학도병/탁형권 • 281 | 2. 함북에서 흥남, 부산까지/박준혁 • 284
3. 재소집 되어 학도병 민부대로/성민완 • 291 | 4. 형제간의 생사, 동생의 희생/최봉채 • 297
5. 1·4후퇴로 국민방위군/김옥수 • 300

제5장 인민의용군으로 전쟁터 • 304

1. 낙동강 마산의 진동전투/김성연 • 304 | 2. 인민의용군 자원 입대 선동/채규열 • 307
3. 인민의용군 3기/진홍영 • 310 | 4. 인민의용군 거제포로수용소/탁형권 • 317

제6장 9·28수복과 질서회복 • 326

① 안정을 되찾아 가다 • 326

1. 수복 후 도청에 출근/이정상 • 326 | 2. 부산 임시도청 전주로 복귀/김대전 • 329
3. 수복 후 마산에서 전주까지/김종환 • 331 | 4. 전북도청의 부역자 심사/김대전 • 335
5. 정훈대 활동으로 향토 안정/이기택 • 340 | 6. 피난민 후대로 칭송받아/진기풍 • 342

② 산적한 현실 처리 • 343

1. 어지러운 사회상/박병연 • 343 | 2. 11사단의 빈번한 만행/김재영 • 347
3. 사단 정보처 학도병/김훈철 • 349 | 4.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문관/전병림 • 356

제7장 빨치산의 발호와 피아간 비극 • 362

① 빨치산으로 입산한 사람들 • 362

1. 구舊빨치, 신新빨치 / 장명수 • 362 | 2. 전북도당 회문산에 집결 / 박남재 • 370
3. 우익인사 살리고 산으로 / 황천익 • 375 | 4. 형님 살리려고 연락책 / 황병근 • 381
5. 아지트를 완산동으로 / 김성언 • 389

② 주민의 피해와 죽음의 공포 • 392

1. 좌·우로 갈라선 고향 사람들 / 이기택 • 392 | 2. 쌀은 주어도 소는 못준다 / 김을생 • 396
3. 미수복 지역은 인공치하 / 김형채 • 401 | 4. 오수역 열차 피습사건 / 김재영 • 410

제8장 빨치산 토벌 전투 • 412

① 살려고 결사대 • 412

1. 낮 대한민국, 밤 인민공화국 / 유강수 • 412 | 2. 결사대가 동리 지켜 / 강병희 • 415
3. 외팔이부대와 사생결단 / 강신갑 • 417 | 4. 지리산 전투경찰대 종군 / 최의완 • 424

② 밤이나 낮이나 대결 • 427

1. 전투경찰에서 생사기로 / 소병문 • 427 | 2. 학도경찰로 전투 / 정영득 • 429
3. 신문기사로 유격대를 막다 / 진기풍 • 435 | 4. 차일혁과 이현상의 정전회담 / 차길진 • 436

제3편 사회 · 문화

제1장 해방의 기쁨과 사회문화 / 장명수 • 445

- 1) 활발한 문화활동 • 445 | 2) 해방공간의 체육활동 • 447 | 3) 인기 많던 권투 • 448

제2장 해방공간의 체육과 문화 • 451

① 힘으로 제압하는 사회 • 451

1. 정의단의 탄생과 소멸 / 탁형권 • 451 | 2. 체육관의 출범 / 탁형권 • 454
3. 권투로 힘을 분출 / 탁형권 • 456 | 4. 가다의 출현 / 엄영봉 • 459

② 왕성한 축구와 야구 • 461

1. 최강의 북중 축구단/유도수 • 461 | 2. 부정선수로 골키퍼를/이 훈 • 466
3. 화려한 직장 축구단/서준용 • 470 | 4. 한국야구 선구자 김영조/이용재 • 472

③ 춤과 그림의 본향 • 477

1. 김미화와 최승희의 만남/김요안나 • 477 | 2. 김미화무용연구소에서 춤을 배워/최 선 • 481
3. 동광미술연구소와 화단/하반영 • 483 | 4. 마지막 기생, 허산옥과 행원/진기풍 · 김유앵 • 486

제3장 전쟁과 평화와 문화/장명수 • 489

- 1) 1950년대 전쟁 후의 문화활동 • 489 | 2) 1950년대 중반을 넘어가며 • 492

제4장 6 · 25전쟁 후 할리우드 탄생 • 495

1. 할리우드가 된 사연/장명수 • 495 | 2. 전시 피난 연예인들/하반영 • 501
3. 영화 「애정산맥」 여배우 김윤희/탁 광 • 504 | 4. 영화 「피아골」 탄생의 전말/김종환 • 507
5. 「피아골」 촬영의 뒀안길/서복남 • 510 | 6. 새로운 영화감독의 출현/탁 광 • 513
7. 최초 천연색 영화 「선화공주」/김정남 • 515

제5장 다양한 문화의 전개 • 519

① 새로운 문화는 익어가고 • 519

1. 미국문화원이 문화 선도/송영상 • 519 | 2. 다방 문화 풍속도/고귀순 • 522
3. 운명교향곡을 연주한 밴드/이용화 · 황병근 • 527 | 4. 강릉에 빼앗긴 단오제/서준용 • 533
5. 단오제를 풍남제로/진기풍 • 535

② 낭만은 문화를 타고 • 538

1. 나폴리다방의 무동/최 선 • 538 | 2. 자유부인의 거센 춤바람/최양수 • 543
3. 험난했던 소리길/주봉신 • 546 | 4. 전주국악원의 창설/김유앵 • 552
5. 문화선도단체 모악촌/김종환 • 554

제6장 풍성한 생활은 열려 • 556

1. 해장국이 콩나물국/송영상 • 556 | 2. 요절한 화가 이준성/최승범 • 558
3. 오목대와 경기전의 훼손/오남근 • 561 | 4. 전주천 풍경과 오기된 지명/이주필 • 566

5. 녹도의 시가지 풍경/이화옥 • 572 | 6. 고샅길 문화, 놀이와 행사/장명수 • 577

제7장 서민의 생활상 • 581

1. 식량부족으로 허덕여/김종섭 • 581 | 2. 전쟁 후의 마비된 교통수단/김재영 • 584
3. 월급 박했던 전매청/이화순 • 587 | 4. 행운을 전한 우편배달부/김정곤 • 589
5. 해산을 도맡은 산파/이복남 • 595 | 6. 감기에도 왕진 다닌 의사/류승국 • 601

제8장 스포츠의 세계 진출 • 605

1. 축구기린아 공고/이용화 • 605 | 2. 레슬링을 심다/안광열 • 613
3. 태권도의 국제경기화/유병용 • 617 | 4. 서울에서 전주체육관으로/안광열 • 622

제9장 오용된 완력 • 626

1. 오도된 주먹세계/홍남표 • 626 | 2. 학생, 조폭, 결투장 투구봉/장두원 • 629

제10장 향토기업의 창업과 흥망성쇠 • 634

1. 교동에서 창업한 백양메리야스/송기준 • 634 | 2. 당성냥하면 닭표/심복순 • 642
3. 공부 길잡이 문화연필/이종철 • 651

제11장 박정희 대통령과 얽힌 사연 • 660

1. 고달픈 전쟁 미망인/손주순 • 660 | 2. 박정희 대통령의 우정과 의리/손주순 • 664
3.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창들/윤영기 · 류승국 • 673

■ 구술 및 도움 주신 분(86인) • 680

■ 사진자료 • 684

■ 사진목록 • 686

■ 정오표(1권) • 713

■ 참고문헌 • 683

■ 일본사진 자료 • 685

■ 찾아보기 • 695

■ 편집후기 • 716

4. 마지막 기생, 허산옥과 행원

구술_진기풍*

해방 후 예향 전주에는 용모가 수려한 기생 3명이 있었어요. 금옥, 산옥, 연옥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삼옥' 또는 일본말로 '산다마'라고 일컬어졌어요. 이들은 경기전 옆에서 '운심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한식요리집을 경영하였습니다. 금옥은 천하일색의 미인이었어요. 그 미모는 서울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후에 금옥은 서울 '비원' 앞에서 큰 요정을 하여 장안에서 큰 이름을 남겼어요. 연옥은 키가 큰 미인이었는데, 나중에 경상도 어딘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옥은 전주에서 행원을 경영했어요. 산옥은 남몰래 장학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편집자 주 ; 삼옥 중에 산옥이가 허산옥이다. 후에 요정 행원을 경영하였다. 허산옥은 해방 후 동광미술연구소에서 미술공부를 하였고(445쪽 참조) 후에 광주의 의제에게 그림을 배웠고, 국전 추천작가가 되었다. 어려운 학생에게 남몰래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다. 행원은 국악의 본산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요정문화를 만들었다. 서울 유지와 원로들은 지금도 행원이 있느냐고 묻곤 한다.)



〈사진 193〉
전주행원 간판.
(2007년 11월)

* 진기풍(陳琪豐) 1925년생(83세) 강압시에학술재단 이사장, 진 전북일보 사장. 채록_김명신.

2) 1950년 중반을 넘어가며

빈곤과 부패사회

전쟁의 후유증은 도시·농촌할 것 없이 초토화되어 살길이 막막했다. 그 중에서도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전제민, 상이군경, 전몰장병의 유족, 고아, 유랑민, 막대한 실업자 등의 문제해결이었다.

세월은 악이던가! 195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전쟁의 상처는 아물어갔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절대 식량이 부족하였다. UN의 구호물자와 미국의 구호용 밀가루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특히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생산되기 직전의 어려운 춘궁기를 해마다 겪어야만 하였다. 이른바 굶주림의 보릿고개라 하였다. 절량민이 많아 참혹할 정도였다. 예를 들어 전주시내 결식아동이 5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30%가 될 정도였다.

게다가 자유당 정권은 정치 행정적 부패가 막심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각종 선거가 막걸리, 고무신, 봉투 등을 주어야 하는 타락 선거였고 투표함 환표사건도 빈번하였다. 1956년 8월 정읍경찰서 박재표 순경이 투표함 환표를 폭로하였고 부정선거가 도처에서 횡행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공무원 봉급이 너무 작아서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사진 197〉
막걸리 선거모습.
(1950년대 중반)

작가 김종환, 명감독 이강천, 영화제작자 김영창이라는 트리오가 탄생하였다.
전주는 한국의 할리우드가 된 것이다.

김진규의 등장과 간장 배달 설

1955년 제작된 「피아골」은 한국영화 사상 걸작품과 문제작이 되었다. 또한 영화에 출연한 배역들은 악극 배우 탄따라에서 한국 유수의 영화 스타가 되었다. 한데 주연이었던 김진규는 피아골 영화와 연계된 것 이외에 전주와 얽힌 이야기가 몇 가지 떠돌고 있다. 일제말 다가동에 있던 간장공장 배달원이었다는 것과 심지어 용머리고개에서 술 배달 또는 막걸리 장사를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야기가 떠돌아다닌다.

김진규 스토리

김진규는 동경음악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일제말에 이미 악극계인 약초若草 가극단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일제말 악극단은 여러 개 있었으나, 왕성한 활동은 조선악극단, 반도악극단, 라미라악극단이 있었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성보가극단과 약초若草(와카쿠사) 가극단이 있었다.

성보가극단은 1941년 황금좌(해방 후 국도극장, 지금은 철거되어 호텔이 서 있다.)에서 창립했다. 성보악극단 1기 연예연구생은 황해, 양훈, 현인 등이었다. 수백 명의 공모에서 뽑히고 6개월의 연기 연습이 있었다.

약초가극단은 1943년 창립되었고 고정극장을 가지고 있었다. 약초극장인데 해방 후 수도극장, 스카라극장으로 개명되었다.

바로 약초극장의 주요 출연진은 간부로 남인수, 윤부길 등이 있었다. 그 아래로 김진규, 이예춘, 남해남, 복진애, 노경희가 있었다. 모두 약초가극단 제1기 연기연예생 출신이다. 연구생은 성보와 같이 수백 명 공모에서 뽑혔고, 6개월의 수습을 받은 명배우들이었다. 김진규는 약초극장의 명배우 출신이었다.

1944년이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막바지에 치달았고, 배우에게 기예증을 발행하여 공연을 제한했고, 매월 정기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일본군 위문을 다녀야 했고, 그곳은 만주, 중국 등의 전쟁터였다. 위문단 수는 10개가 넘었다. 한편으로는 강제 징용에 끌려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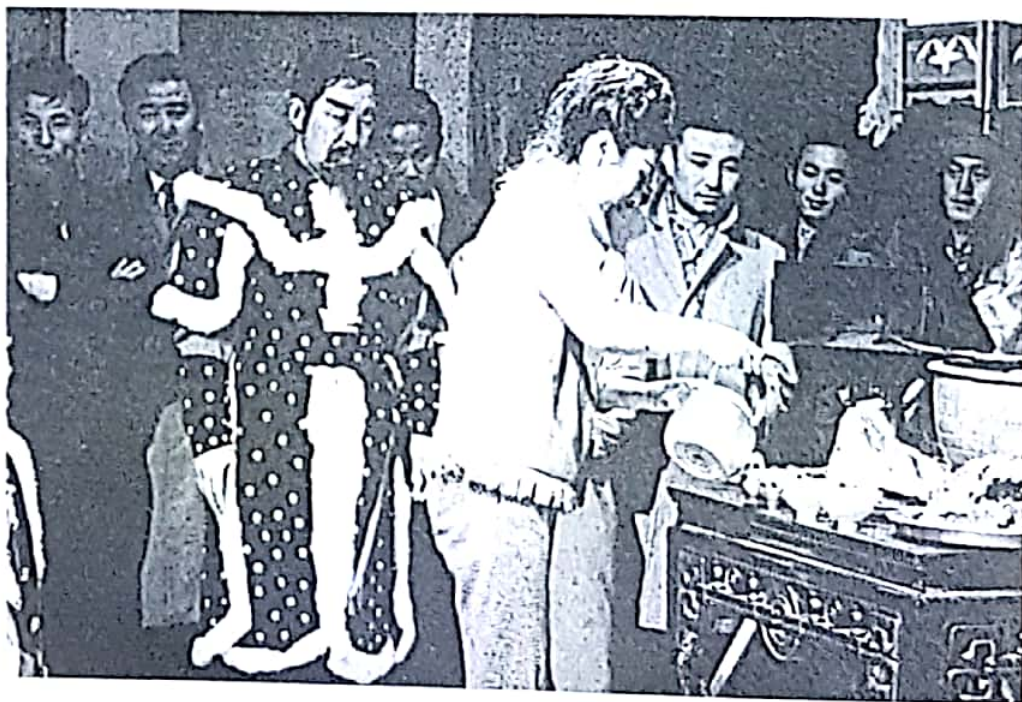
김진규는 징용을 피해 전주 다가동 동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었다

영화 아닙니까? 포스터 같은 것도 전부 다 홍콩에서 인쇄해 오고 대형 포스터도 만들고, 배우들이 영화 속 복장을 하고 서울 시내를 나발 불면서 선전하고 그랬어요. 돈 많이 투자해서 그 영화 제작해 놓고 걱정됐죠. 서울 국도극장에서 개관을 했는데 하루에 7천 명이 들었었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에요. 막 극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국도극장 앞에 전차 길이 있었는데 전차가 차단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7천 명도 안 든 작품이 허다했거든요. 그것이 잘된 영화고 좋은 영화면은 꾸준히 들지만 아니면 관객이 그냥 끊어져요. 어떤 것인가 판 영화를 상연하다, 실패를 했죠. 극장하고 계약할 때 몇 사람 이상이 안 들면 간판을 내려야 된다는 계약을 허거든. 그래서 영화사측에서 돈을 풀어 가지고 표를 사서 연장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백 명 이하면 내린다 이런 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450명이나 들면 50명 것을 사서 연장 상영을 했거든. 워낙 안 되게 생겼으니까 간판을 내린 거지.

격퇴

또 후에 「격퇴」라는 영화를 했어요. 전쟁영화입니다. 참 뜻도 좋고 좋았어요. 국방부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격퇴」도 별로 재미를 못 보셨어요. 그 뒤에도 사무실을 종로로 옮겨 가지고 「강짜 소동」 영화 타이틀입니다. 「팔검객」 또 「미녀 소동」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작품을 했죠. 그것들도



〈사진 209〉
「선화공주」 촬영에 앞서고
사지내는 광경.
좌에서 두 번째 김영창, 세
번째 허창강. (1956년)

2. 다방 문화 풍속도

구술_고귀순*

토지개혁

지금의 남창당약방 자리가 옛날 우리 집 자리였어. 그 골목에 우리 집허고 박진숙이라고 허는 사람 집허고 부자가 두 집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남방에 갔다 오서가지고 병이 들었어.

그런데 8·15 후에 토지개혁이 생겨가지고 토지는 싹 농사짓는 사람한테 분할해 줘 버렸잖아. 아주 큰 대지주라면 모를까 소지주들은 일 년에 조금씩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주인 양반은 지주 아들로 옛날에는 지주 아들은 돈 안 버는 게 양반이여. 돈 벌면 상놈이고, 궁게 아버지 유산을 받았지만 몸도 안 좋고 토지개혁으로 망했지.

(사진 212)

왼쪽 아담다방(1950년대 중반에 창업, 80년대까지 1층에서 영업하였다. 건물 소유주는 고귀순 씨이지만, 다방은 이충으로 옮겨졌고, 상호는 아담으로 계승되고 있다.) 오른쪽 삼양다방(1950년대 중반 창업. 장소는 같다. 영업주는 여러 번 바뀌었다.)



* 고귀순(高貴順) 1924년생(84세) 아담다방 창업자. 채록_김명신.

부잣집 며느리가 장사를

내가 세대주가 됐어. 그리서 내가 처음으로 남부시장으로 가게를 얻어 어물장시를 했어. 그때는 상권이 남부시장밖에 없었어. 바깥에는 안 사러와. 도매상만 바깥에가 있어. 그랬는데 부잣집 며느리가 시장으로 나와서 장사 시작했다고 기자들이 찾아왔었어. 삼남일보 이기자도 있고 유선생이라고 내 동창인디 그 사람도 기자였어. 그것이 톱기사였어.

시장에서 어물장시를 허는디, 그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시장에 가게들이 양쪽으로 있는디, 그 가운데다가 노점상같이 죽 자리를 잡고 팔었는디, 가만히 보니까. 어물, 멸치, 명태 그런 거 파는 것보다도 그 깡통 파는 것이 참 재밌게 보드라고.

깡통장사

그때 막 물자가 많이 나왔다고 PX물건, 미군 부대에서 몰래 가지고 나오는 깡통 같은 것을 니꾸사꾸(배낭의 일본말 ; Rucksack) 같은 데, 짊어지고 몇 개씩 갖다 팔고 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디, 전주에는 미군 부대가 없었어.

그래서 군산, 대전 같은 데서 보따리 장사들이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고 부대에서 도둑질해서 가지고 나온 것을 숨겨가지고 파는 거여. 깡통, 커피, 술, 담배. 그때는 양담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래서 나도 하나, 둘 팔다가 전라북도 상권을 내가 잡았어. 커피에다 타서 먹는 카네이션이 있었네. 카네이션, 커피, 홍차, 코코아 막차 종류를 내가 다 샀어. 커피, 설탕 같은 거를 트럭으로 샀어. 그래가지고 남부시장 지금 남창당약방 자리에서 도매상을 했어. 한 번은 세무서에서 알아 가지고 뒤지로도 오고 그랬어.

부안 김계(김제)에서도 우리 집으로 사로 왔어. 그래서 돈을 조금 벌었지. 가게허고 안집허고 떨어져 있으니까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중앙동 지금 '하얀웨딩' 자리에 집을 샀어.

아담다방 창업

내가 어고 다닐 때 시방 중앙동 우리 집(하얀웨딩) 가게를 내 머리에다 넣었어. 거그가 '다리봉식당'이라고. 일정시대에는 한국 사람 집은 그거 하

나였어. 맨 일본놈들이 '다이쇼 마치大正町(현 중앙동)'라고 죽 있었고, 내가 그 집을 눈여겨봤어. 이 집이 참 좋다 안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때 어떻게 돼서 머릿속에다 그 집을 넣었어.

그래 가지고 항상 살라고 알아봤어. 그 주위에서 아저씨들한테 그 집 안 팔어요? 하고 묻곤 했지. 그런데 한 번 누가 그러. 그 집이 시방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그서 그 집을 내가 샀네.

식구는 애들 셋하고 우리 내외하고 다섯인데, 집이 너무 커서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내고, 안으로 다방을 만들고 우리 주인 양반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임실 아주머니에게 세를 줬어. 이렇게 해서 아담다방이 생겨났어.

바작으로 들어가

그때 전주극장 골목에 고향다방, 우인다방, 왕궁다방 이렇게 셋이 있었어. 나중에 법원 옆에 삼양다방이 멀찍이 생겼지만, 고향다방은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집이 누 집이냐면 도청과장도 했고, 국회의원 하던 지연해(2대 옥구 국회의원) 씨라고 그 집인디 여동생하고 서울 여자하고 같이 합자해서 다방을 했어.

여그 사람들은 누가 다방 혈지나 알었간디. 그 사람이 처음 와서 다방이라고 시작해서 그 다방이 생긴 거여. 전북일보 기자니 뭐니 다 왁작왁작 허니까, 그 근방에 다방이 두 간디가 더 생겼지.

왕궁다방은 부잣집 할머니였어. 옆으서 고향다방이 그렇게 잘 허니까 에이 내 집 놀리느니, 나도 여그다 다방 맨든다고 허고 맨들었어. 그리갖고 어디서 마담을 일류로 빼갖고 와서, 고향다방 손님을 다 뺏아가다시피 했지. 내가 물건을 대는데, 막 바작으로 들어갔어.

그때는 구루마(수레)가 없으니까, 바작꾼들이 있었거든. 그 할머니가 나오면 죽 바작꾼들이 달라들어 설탕도 바작으로 들어가고, 커피도 몇 통씩 가져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산해서 주고 했는데, 그 할머니 아주 억센 할머니였어.

우인다방의 현인

그리고 우인다방은 주로 극단배우들이 많이 댕졌어. 서울서 극단이 한 번 씩 오면 전주 시내가 들썩들썩했지. 인기가 굉장했어. 전주극장에서 공연을

하민 사람이 미어터졌지. 그 배우들이 우인다방에 댕겼는데, 우인다방의 예쁜 마담이 거그서 장사를 했거든. 현인, 김정구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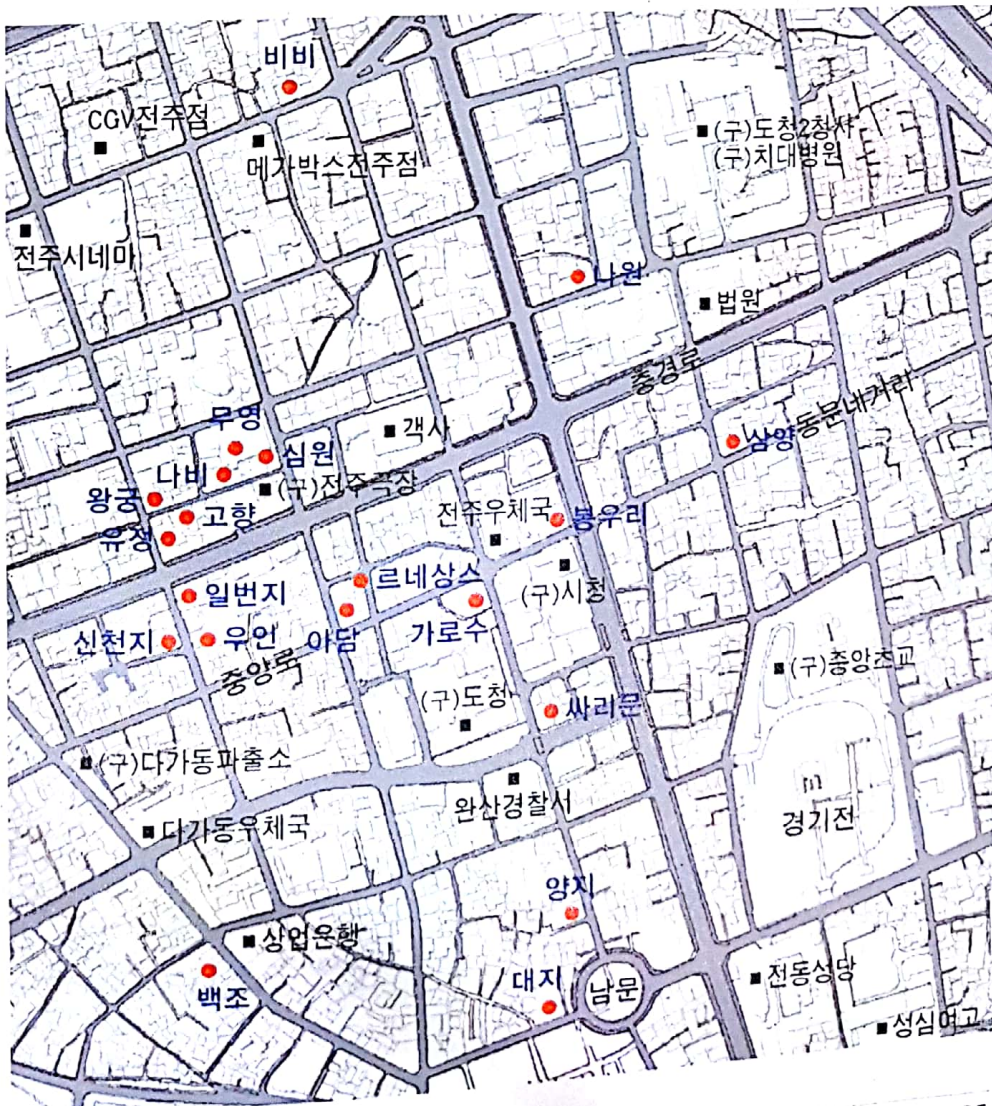
오죽해야 현인 그 사람이 거기 주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오면 노상 거기 다방에 있었어. 서울서도 충무로 어디 다방 유명하지 않아, 그 사람들 가는 다방 그러듯이 전주소 신문기자들 사장들 다방에서 생활하지. 어디 간다는 게 거기야, 모다. 그러니까 마담하고 좋아하네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마담 스카우트

우리 아담다방은 나중에 내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담은 광주 소개소에서 데려오는데,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데려오는 거여. 그리고 도망가면 막 쫓아댕기고 기어이 받아와. 말하자면 장사는 마담이나 레지가 해주는 거여. 아가씨가 잘 들어온다든가, 마담이 잘 들어

(사진 213)

1951~60년까지 50년대 다방 분포 상황. 6·25전에는 다방이 없었고 양식집인 신천지가 있었을 뿐이다. 6·25후에 첫 번째 생긴 다방이 고향다방이고 이어서 왕궁다방, 우인다방, 아담다방, 삼양다방 순으로 문을 열었다. 그 후로는 우후죽순격으로 다방이 늘어갔다. 전쟁직후 암울할 때 지식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다방이움이 잦았다. 특히 문화예술인, 연예인은 다방의 단골손님이었다.



온다든가, 이쁘다든가, 서비스가 좋다든가 그러면 가 주가가 올라가서 여그 저그서 돈 터준다고 테리리 오고, 또 못 가게 하니라고, 굉장한 대접을 하고 그랬어. 그때 종업원이 주방에 둘 홀에는 마담하고 레지가 둘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종업원들이 통근이라는 게 없었어. 우리가 숙식을 제공했어.

조무래기들이 안 와

우리 다방만 해도 고급다방이지. 쉽게 말해서 고급손님이지. 판검사, 고관들이 많이 왔어. 점심 후나 저녁때는 자리가 다 찼었고 지사도 사람 만날 라면 오고. 근데 지사 같은 거 오면 안 돼. 지사가 와서 차 팔아주는 거 아니잖아. 어찌다 오는데, 지사가 그 집이 땡기네 허면 밑에 과장이네 조무래기들이 안 와. 그렇게 지사가 오면 우리집에 오지 마시라고 그러.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그러지 나보고.

분위기 잡느라고

그때 다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연예인, 기자, 신문기자들이지. 나중에 관공서 사람들이 어디 모인다고 허면 다방에서 모이곤 허는 거지. 일반사람들은 다방에 가서 죽치고 앉았고 거기서 볼일 보고 사람 만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

다방 풍경은 지금하고 다른 게 별로 없었어. 분위기 잡느라고 음악을 틀었지. 전축 같은 거는 수동으로 손으로 태엽을 감아서 허는 거였어. 판이 튀어서 찌직소리가 나면 달려가서 판을 뒤집어놓고 다방에 전축이 안 좋으면 음악이 안 좋으니까 서둘러서 좋은 것으로 사다 났어.

나는 얼마 못했지. 아담다방 시작해 놓고 바로 애들 때미 서울로 올라갔으니까. 아들, 딸 공부 시킬라고 다방은 세를 내놓고, 그때 백형사라는 사람이 맡아서 했어.

전국적인 브라스밴드

구술_황병근*

내가 전주공고 밴드부를 4년 했는데, 거기서 트럼펫을 불었어.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고광호 선생님이라고 있었어. 고광호 선생 그 양반 브라스밴드여. 브라스밴드 허면은 고광호여. 전국적으로 그 정도로 열정이 있고, 또 그 정도로 잘 가르쳐서, 우리 공고 밴드가 한국적인 밴드가 되어 버렸지. 그래 갖고 서울콩쿨대회에 가서도 1등은 못 뒀지만 3등하고 그랬는데, 우리 호남에서는 우리 당할 사람이 없었어.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원체 우리가 잘 허니까, 학교에서도 별 수가 없어. 지원은 없었지만, 우리가 쌀 갖다 밥해 먹고, 전통이 그러니까. 제일 잘헌게.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고, 저 군산해양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콩쿨대회를 혀. 콩쿨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연 3년 1등을 해서 우승기를 뺏어와 버렸어. 허허허허. 연 3연승했단 말여. 우승기는 연 3연승해야 뺏어와.

오므라이스면 최고급

또 6·25 직전에 학생들 교련이 있었는데, 이것을 허면 행진을 해야 되니까 이걸 붙여줘야 된단 말이어. 그때 배속장교라는 군인장교 교사가 있어. 교련 가르치는 선생. 소위도 있고 중위도 있고 그러. 이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그냥 우리한테 와서 아양부양허지. 행진할 때 해달라고.

그때는 그냥 저쪽 다가동에 '신천지'라고 조그만 양식집이 생겼어. 런치 오므라이스. 그때는 런치 오므라이스 허면 그냥 최고급이여. "야! 런치 다 런치." 런치 사준다 이거여. 런치가 그때 3,000원. 지금 값으로 치면은 만오천 원이나 이만 원 했을 거여. 최고로 비쌌어 그때. 아 이걸 사준다고 꼬서 우리를. 허허허.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웨딩마치 연주해주고 그랬어.

테너가수 반주도

유명한 우리나라 테너 가수 이인범이라고 있었어요. 화상으로 죽었습니

* 황병근(黃炳謹) 1934년생(74세) 전 전북예총회장. 채록_홍기양.

제6장 <<< 풍성한 생활은 열려

1. 해장국이 콩나물국

기술_송영상*

해장국이라 했어

콩나물국밥은 50년대까지만 해도 해장국으로 불리웠다.

필자가 과문한 탓으로 혹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주의 유명한 콩나물국밥 해장국 하면 성심옥과 한일관으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일제때부터 완산동에서 시작된 콩나물국밥 전문집을 알아본다.

현재 완산동 원각사 골목에 오씨가 문을 연 오씨집으로 통한 콩나물국밥집이 전주의 콩나물국밥으로는 유명했다.

그 후 서천교 건너기 전 다가동에 도래파라는 해장국집이 있었는데 도래파는 한옥이었다. 서천교 건너 완산동에 김제파라는 한식으로 2층집이 있었는데 국밥을 팔았다. 이 두 집의 해장국 또한 전주천을 끼고, 다가동과 완산동을 끼고 번성했다.

(편집자 주 ; 완산동 오씨집과 다가동 도래파 해장국집이 일제 때 있었다. 1950년 9·28수복 후 옛 전주시청(현 중소기업은행) 팔달로에 판잣집이었던 일심옥과 성심옥이 있었다. 54년에 한일옥이 문을 열었다.)

성심옥과 한일관

다음으로 현재의 유명한 한일관은 남부시장 가구점 골목에서 1954년 한

* 송영상 1937년생(71세, 전 전주문화방송심의위원).
『전주천변』, 신아출판사, 1995, 35~36쪽.

〈사진 222〉
한일관.
(1999년)



일옥(편집자 주 ; 그 이전에는 익산극장 앞에서 구멍가게 식당을 경영했다.)으로 개업을 하고 다시 한때 양키골목이라고 불리는 남부시장 옆으로 나온 민생병원 자리로 옮겨 앉아 번창할 때까지는 복쟁이가 유명했다.

그러다가 시내 중심가로 파고들어와 수도여관 골목에 옮겨 앉을 때 한일관으로 옥호를 바꾸고 입구 골목에는 하얀 차들을 깔고 현관문을 고전적으로 단장하고서 전주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는 콩나물국밥을 해장국으로 내놓게 되었다.

한때는 손해를 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하여 당시 행정당국에서 다소의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전해진 말도 있었다.

현재의 자리에서 한일관이 이전 개업할 당시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점심때는 해장국을 팔지 않고 일정량을 판매하고 나면 문을 닫는다는 그런 유머가 떠돌아 심지어는 꼭두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편집자 주 ; 현재는 어은터널 서쪽 입구에 있다.)

한 그릇 한 그릇씩 숟불에 끓이는 특징이 더 유명세를 부채질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최근엔 가스불로 잠시면 뜨겁게 끓여 앉자마자 먹을 수 있어 좋다고들 한다.

1950년 전쟁이 끝난 후 먹거리가 부족할 때 콩나물국밥은 싸고 맛있는 국밥이었다.

막 돌려. 그러면 자전거 라이트가 딱 켜질 것 아닌가, 그러면 목욕하는 데다가 막 비춰. 허허허. 장난삼아 그랬지요.

(편집자 주; ① 전주천에 해가 지면 수백 명의 욕객들로 남녀혼합 목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② 전주경찰서는 전주천에서 주간 나체 목욕을 하면 적발하여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니 각시바위 부근에서 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북일보 ① 1957년 7월 21일 ② 8월 21일 사회면 기사)

전주천 둔치에서 교동하고 서학동 아이들이 걸핏하면 돌싸움을 했어요. 나중에 어른들이 그래요. 전쟁이 나려고 그랬다고. 물론 심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하나가 피가 난다거나 하면 바로 돌싸움은 끝났지만, 걸핏하면 만나서 돌을 던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6·25때 인공 때도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미군 비행기가 우허니 가니까. 애들이 옷을 들고 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군 비행기가 인민군들인 줄 알았나 봐요. 한벽루 거가 기차 다니던 굴 있잖아요. 애들이 거기서 숨었단 말입니다. 미군 비행기가 이리와 쏘고 똥 돌아와서 저리와 쏘고 사람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흔적은 남아있어요.

참게와 왓대

참게를 밤에 잡는 것도 봤는데, 돌로 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용수 같은 것을 박어요. 거기다 밤에 불을 켜 놓으면 참게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용수가 기다란 고깔모자 같이 생긴 거요. 술독에 이걸 꽂아 놓으면 가운데에 맑은 술만 차요. 그러면 국자 같은 것으로 맑은 술만 퍼내면 됩니다.

고기병이라고 있었어요. 유리병으로 만든 게 있어요. 얇은 유리로 만들었는데 잘 깨집니다. 그것으로도 잡았고, 또 수량이 지금하고 비교하면 2~3배 많았는데, 고무신 신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어디로 떠내려가버리고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

대나무를 얇게 짜개가지고 거기다 낚싯바늘을 달아서, 지렁이를 꽂아요. 그것을 돌 틈에다가 놓았다 뺐다 하면서 뱀장어를 잡았어요. 어족이 풍부했어요. 고기를 그렇게 잡어도 안 떨어졌어요. 고기 잡고 목욕하고 거기가 낭만이었어요.

지금 쉬리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지름치라고 했고. 미꾸라지같이 생겼는데, 노랗게 색을 띠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양술래미라고 했고. 빠가사

리, 불거지 이것은 피라미 수놈인데 배에 무지개색 들어간 거. 왠대란 것이 있어요. 새우보다 큰데 익세계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워먹고 그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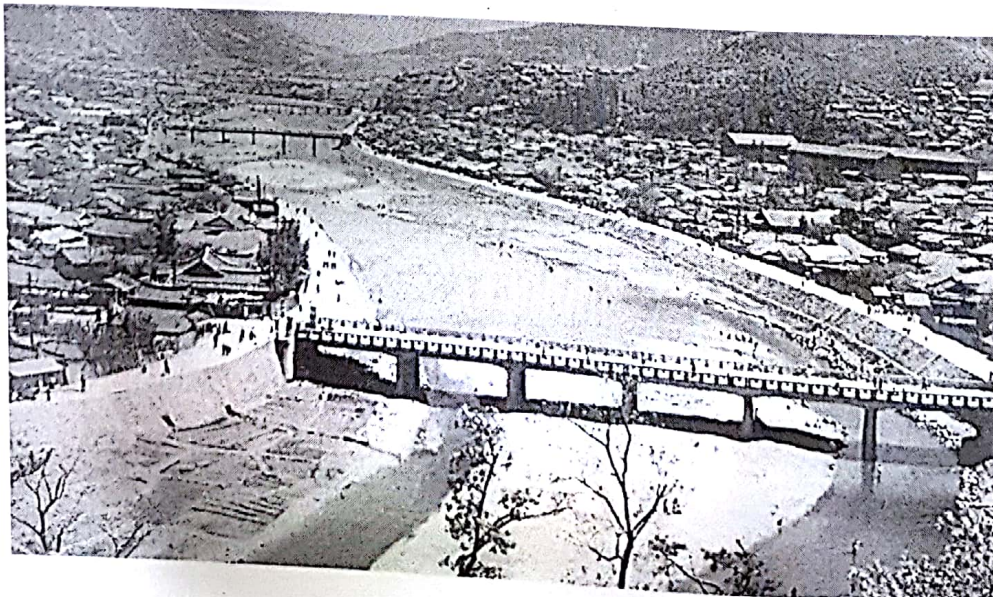
쉬리가 일급수에 산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한테는 천덕꾸러기였어요. 맨 그거였거든. 그러다가 물이 약간 흐려지면서 붕어가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붕어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천변에 오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침에 오리를 몰고 천변에 풀어 놓고 해질녘에 오리를 몰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 녀석들이 참 주인을 잘도 따라다녔어요. 해질녘에 오리들이 일렬로 뒹뚱뚹거리며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각시바위, 서방바위

한벽루 벚꽃 터널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버드나무로 바뀌었어요. 4월 20일이 되어야 만개가 되었는데, 이때 구경 다니는 사람이 생기니까 오모가리탕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거기서 잡은 것을 팔았지만, 지금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한벽당 위를 올라가다 보면 각시바위 서방바위란 곳이 있어요. 행원이나 이런 요정 있잖아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하니까, 거기로 분점을 나와요. 평상 놓고 천막치고 거기로 나가, 아가씨들이. 당시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갔지요. 적어도 당시에 자가용을 몰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사진 228〉
1950년대 전주천.

5. 녹도의 시가지 풍경

구술_이화옥*

전주의 첫인상

1950년대 후반 다가공원에 올라 바라본 전주는 집집마다 나무들이 들어차 있어서 가옥들이 보이질 않고 지붕만 조금씩 보였어요. 그 정도로 전주가 숲으로 쌓여있어 전주를 녹도라 그랬어요. 푸른 도시, 그리고 전주 팔경 중에 하나인 전주천가에 앉아 흰옷들을 입고 빨래하는 광경은 쳐다만 봐도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었어요. 또 물은 얼마나 맑은지 몰랐어요.

전주는 평화롭고 조용하고 푸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전주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 있었지만 그런 풍경들이 너무 좋아 아까워서 못 떠났



〈사진 229〉
오목대에서 본 교동.
(1960년대)

* 이화옥(李化郁) 1931년생(77세) 전 전북도청 공보실 근무. 채록_김명신.

어요. 전주처럼 보수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고서점가와 콩나물국밥집

아, 이 동문네거리 길이 콩나물국밥집의 집산지였어요. 6·25 직후, 그 당시에 콩나물국밥집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일심옥이라는 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 심심자가 들어간 곳이 많았어요. 일심옥, 성심옥 지금 생각나는 게 두 개데, 그 외 콩나물국밥집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주에 손님이 오면 장관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고 나면 가서 아침은 전부 콩나물국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콩나물국밥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한 20년 후에 일심옥이 없어지면서 생긴 게 옥쟁이할머니집이에요.

그곳 변화를 보면 중소기업은행(구 시청) 쪽 팔달로를 5~6미터씩 잠식해서 무허가 판잣집과 노점상이 지금 상업은행에서 시작해서 고사동 '걸고 싶은 거리' 입구까지 차지했어요.

일심옥

처음 일심옥은 팔달로가 포장되기 전 판잣집에서 시작했다가 구 전북은행 북쪽 길 건너에 정식 가게를 얻어 옮겨 갔어요. 고서 노점상이 죽 있었어요. 지금도 그 영향으로 고서점이 동문로에 몇 개 있잖아요. 그게 건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동문로를 죽 가면 전여고, 전주여중, 전주상고, 전주북중, 전고 이 학교들이 이 동문로로 전부 다녔어요. 신흥학교 기전학교는 저쪽에서 거꾸로 내려오고 성심학교도 이쪽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고서점 앞으로 전부들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비싼 돈 주고 책 살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헌 책들을 구입했어요. 그때 전주의 지식인들이 전부 이 고서점에서 책을 사고 그랬어요.

50~60년대 그때만 해도 길은 좁고 그러니까 대개 저녁 5시쯤 하학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짹 들어차서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남학생 여학생이 섞여 가니까 로맨스도 좀 있었고 상당히 낭만적이었죠.

50~60년대 3대 서점으로는 가족회관 바로 북쪽에 제일 큰 평화서점이 있었고 우체국 맞은편에 육서점이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협성양품점 자리에 우리집에서 하는 가나다라서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이름도 파격적으로 지었죠. 또 국정교과서만 취급하던 서점이 있었는데 옥



〈사진 232〉
옛장수.
(1950년대 중반)

따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했었어. 줄넘기는 지금하고 똑같았어. 혼자 하는 작은 줄넘기, 그리고 양쪽에서 잡고 돌리면서 “꼬마야, 꼬마야, 들어오 너라.” 여러 사람이 차례로 들어가는 줄넘기가 그때도 있었어. 이게 조금 행동반경이 작은 거고 좀 큰 것은 빵울치기(주먹야구), 자치기, 오자미, 술래잡기 이게 큰 거거든, 이게 애들이 노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웬만한 행상들이 거의 아침, 저녁으로 지나다녔어요. 가령 반찬거리로 쇠고기를 이고 다녔거든, 광주리에다가. 그래 갖고 외치기도 했어요. 쇠고기 사라고. 생선장수, 두부장수, 메밀묵장수 이걸 “메밀묵 사려~” 그랬어요. 또 새우젓 장수, 어리굴젓 장수 조금씩 달랐어.

그 다음에 군것질이 있었어. 옛장수, 과일장수, 군밤장수, 아이스케끼, 번데기장수는 “뽕~ 뽕~”이라고 외치고, 양코빵 그 다음에 튀밥 “튀밥이요!” 하고 “뽕”했지. 찹쌀떡, 꿀 장사 이게 군것질이고.

골목 행상

그 다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칼 갈어.” 하고 다녔어요. 칼갈이, 굴뚝청소, 똥퍼, 나무 사쇼, 짚신 사쇼, 양은냄비나 솥 때우라고 그러고 채 사라고 그러고 웅기장수, 고물장수들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동동 구리무 장수들이 북을 치면서 “동동 구리무 발러 보고 사세요.”하고 박물장수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어.

그 다음에 야간 순찰하는 것 중에서 딱딱이가 있었어. 방망이 같은 걸로 딱딱 치고 다녔어. 이게 주로 야간 순찰이야.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도둑도 쫓고 지금 내가 순찰 돌고 있다고 딱딱치고 다녔는데, 내가 중학교 2~3학년 때까지도 딱딱이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안마하라고 다녔어. 그건 호루라기 비슷하게 뽀뽀 불고 다녔어. 그럼 아, 저게 안마구나. 그건 주로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이 했어. 그 다음에 신문팔이가 있었고 구두닦이가 있었어. 나중에 “따~악” “따~악”하고 다녔어. ‘구두 따~악~.’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탁 두드리고 시주를 얻으러 다닌 스님(중중 때까중이라 놀리기도 했다.)들이 있었고, 또 동냥아치라고 있었지. 혼자나 둘이서 남루한 옷을 입고 깡통을 들고 각 집을 돌아다녀. 가정집에서는 안 그랬지만, 상점 앞에서는 각설이 타령을 했지. 그 수가 굉장히 많았어.

그 속에는 나병환자였던 거지가 꽤 있었어. 문둥병이라고 했지. 애들이 아주 무서워했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애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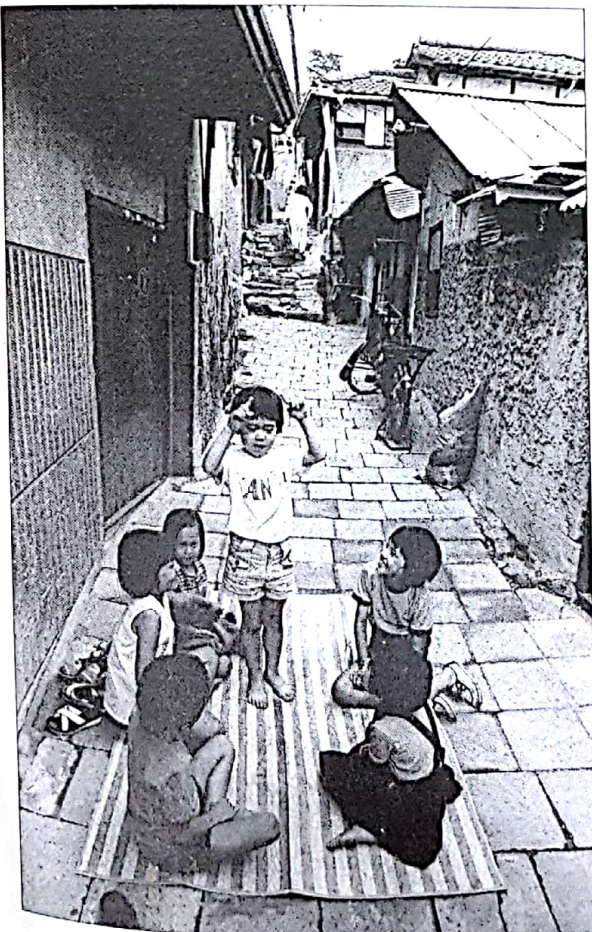
고 하는 바람에 보기만 해도 무서워 벌벌 떨었어.

전주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골목이 세 곳 정도 있었어.

개골목이라고 들어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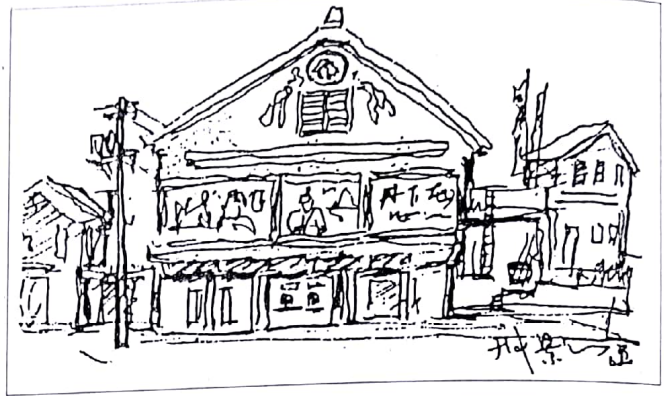
박참판이라는 부자가 살아서 예전에는 박참판골목이라고 불렀어. 전주토박이나 알지. 거기에 큰 기와집이 있었고, 부자가 살았어. 8·15후에 개골목이라 불렀을 거야. 부자들이 몰락하고 사창과 남부시장 하루벌이들이 기어들어오면서 지저분해졌어. 처음에는 사창이 번졌고 다음에는 개정국(보신탕) 가게가 들어서면서 지저분하고 개고기국을 판다고 개골목이 되었어. 서천교와 남문시장 사이에 전주천 제방 밑에 골목 길이야. 지금은 여인숙 골목이 되었지.

(사진 233)
골목은 어린이 놀이터이기도 하였다.



극장골목은 들어봤어?

왜정 때 제국관이란 극장이 있었어. 그것이 8·15후에 독립극장(진주극장)이라 했고,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이 골목이 전주의 변화했던 문화거리였어. 고향다방, 왕궁다방이 있었고, 기타 여러 다방이 있었지. 문인, 화가, 영화인, 기자 등이 출입하는 그야말로 선망의 골목이었어. 극장은 전주백화점 건립 시 없어졌고, 골목은 쇠퇴했어.



〈사진 234〉
1920년대의 전주 제국관 모습. 화가 하반영의 수첩에서.

구호물자골목 또는 양키골목 들어봤어?

6·25가 나서 이곳으로 현웃 구호물자가 쏟아졌거든. 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었는데. 그래도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구호품들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거래가 형성된 골목이야. 남문 지나서 매곡교 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오른쪽 골목이었어.

골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나름 문화를 담고 있어.

결국은 골목이라는 것이 사람 통행도 허지만 이웃끼리 만나서 인사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인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장사, 교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골목이야. 골목이란 게 표준말로 나와서 그러지 이게 전주말로 '고살길'이었거든.